

# 지역경제 활성화 · 군민 삶 안정에 '역점'

## 담 하류지역 피해 복구 행정력 집중 · 감염병 없는 '청정 진안' 사수

2020년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가장 큰 화두인 한해였다. 진안군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군민들의 삶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1차 군민 1인당 20만원의 지급했고 2차지원금 100만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50일이 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용담댐 방류로 인한 담 하류지역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냈고, 신속한 피해복구에 나설 수 있었다. 이러한 군의 한발 앞선 정책수립과 추진은 삶의 만족도 및 행복지수 전복 1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군은 철저한 코로나 19 방역활동을 펼쳐 코로나 없는 청정 진안을 사수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전국 226개 지자체중에서 진안군을 비롯해 전남 강진군, 장흥군과 인천 옹진군 등 4곳뿐이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한 지역 진안군의 올해 군정 성과를 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본다.

### 풍요로운 지역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한방특구'인 진안 홍삼한방산업의 대도약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홍삼한방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국비 70억원을 확보해 홍삼과 곤충을 결합한 건강식품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진안 농특산물 유통판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운영규모를 전년 대비 100억원을 늘려 지역상권을 활성화했고 코로나19와 맞물려 건강하고 안전한 진안고원의 농특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진안 로컬푸드직매장 매출이 2배가량 성장했으며, 드라이브스루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열어 비대면 유통관로를 개척했다.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착공



### 수해 피해 현황 보고



###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강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안군은 전북 유일의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이는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보건소 등 15개반 60여명이 협업해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운영하고 선별진료소 및 이동형 X-ray 설치 운영 등 선제적이면서 예방적으로 감염병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상반기에 1차로 군민 1인당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했고, 이달 말까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급에 나서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가계 고통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책 시행을 교육의 범주에 포함해 지역의 활력화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계승을 이루는 미래희망 인재육성

진안군의 교육철학은 학교교육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정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20개 사업에 12억2,200만원을 투입해 교육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지원, 진안사랑장학금 130명 1억



## ▶ 전춘성 군수에게 듣는다

###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안정 청정 진안 지키는데 최우선

전춘성 진안군수는 "취임 후 저의 소임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을 안정시키고 감염병 청정 진안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나가는 것을 두 번째 과제로 삼고 다양한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진안, 행복한 진안, 모두가 잘사는 진안'을 만들어 갈 핵심과제 5가지를 실천하겠다는 것이 그의 군정 철학이다.

지난 4월 15일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치러

### 감염병 위기 극복 위해 '동분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끌어내는 등 행복지수 전복 1위 성과로 이어져

진 군수 재선거에서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제50대 진안군수로 취임한 전 군수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취임 직후 도내 최고금액인 군민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했고, 2차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올 여름 50일이 넘는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자 정세균 국무총리,

안호영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하고 군민들과 힘을 모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냈다. 이런 노력들이 삶의 만족도 및 행복지수 전복 1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군수는 "2020년은 ▲풍요로운 지역경제, ▲차별없는 맞춤형복지, ▲미래희망 인재육성, ▲치유힐링 명품관광, ▲공감하는 소통행정이라는 5가지 군정 역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해였다면 내년에는 사람중심 지역소멸 위기극복 프로젝트 구축, 청정환경 기반 미래진안 신산업 발굴 육성, 군민과 소통하여 공감하고 신뢰받는 군정 운영을 위해 5가지 역점시책에 안전한 진안을 더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군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 홍삼한방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매주 열린 군수실 운영 소통 나서

9,400만원 지급 등 공교육을 활성화했으며, 평생학습관과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105개 강의를 운영해 1,161명의 군민들의 다양한 취미,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교육을 위해 청년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월 15만원씩 최대 1년간 청년이 진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으며, 청년들이 학습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청년미래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다.

###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치유힐링 명품관광' 구축

진안군은 '치유힐링 일인지 진안'을 공약으로 확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먼저, 운일암반일암에 사업비 30억1,200만원을 투입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완료하고,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진안군 5개년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동부권발전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연계(체류)형 패키지 관광사업 국비 37억7000만원을 확보하는 한편 먹거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진안고원 웰빙 산골음식 스테디를 운영하고 있다.

### 군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소통행정' 추진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실천과 평가를 군민

과 함께 하고 군민으로부터 평가받겠다는 취지로 공약이행평가 군민배심위원단을 운영해 총 9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공약의 참된 실천을 이끌어가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매주 열린 군수실을 운영해 현장에서 생생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예산분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복지분야는 여성토론회, 교육분야는 교육포럼, 각종민원에 대해서는 생활민원통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분야, 정책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페이스북 등 진안군 5대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 발생 '잠깐 멈춤' 캠페인

[꼭 지켜야 할 3가지 수칙]

**첫째**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무르기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머무르기 삼가

**셋째**  
증상 발현 시 신속한 검사받기

군산시민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잠깐 멈춤'이 절실합니다.

COVID-19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